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신 현 준

정책자료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신 현 준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은 카스피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개발과 함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첨단 IT 산업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의 고성장, 풍부한 에너지자원, 친시장적인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2006년 5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국빈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최근 한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기적으로는 20%, 중장기적으로는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 향후 한국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풍부한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 중등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물류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관계는 그 가치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한·아제르바이잔 교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무역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자원 분야 및 통신·IT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수입품 발굴작업, 체계적인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교역 불균형 해소 및 교역 확대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건설, 운송 등 첨단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신흥시장이면서도 시장접근성이 뛰어나 경쟁력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정부간 대화 및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무역 및 투자 보호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에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원으로 유망하다.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 등 선발주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류가 절실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한국에 석유 및 가스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과정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무상 원조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확대방안	41
1.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	41
2.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현황	45
3.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확대방안	48
가. 교역 및 투자 확대	48
나. 에너지 공급원 확보	50
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51
 참고문헌	 52
 Executive Summary	 53



표 차례

표 1-1.	2003년 아제르바이잔 대선 결과	11
표 1-2.	CIS 에너지부국의 에너지수출의존도	17
표 1-3.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19
표 1-4.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부문별 산업생산증가율	20
표 1-5.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무역대상국 현황(2005년, 상위 5개국)	22
표 1-6.	아제르바이잔의 2006~07년 단기 거시경제지표 전망	23
표 1-7.	CIS 및 중동 주요 산유국의 확인매장량과 R/P 비율	26
표 1-8.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전망	26
표 1-9.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전망	27
표 2-1.	아제르바이잔 주요 산업의 GDP 비중(2004년)	29
표 2-2.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 동향	32
표 2-3.	아제르바이잔의 물동량 동향	36
표 3-1.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5년)	46



그림 차례

그림 1-1. 아제르바이잔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18
그림 1-2. 아제르바이잔의 GDP 동향	18
그림 3-1.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인구 분포	44
그림 3-2.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GDP 비중	44
그림 3-3.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교역 동향	45



글상자 차례

글상자 1-1.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12
글상자 1-2.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14
글상자 2-1. 비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31
글상자 2-2. TRACECA 프로젝트	36

제 1 장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1. 국가 개황

□ 지 리

- 국토면적: 8만 6,600km²
- 국 경: 2,013km(아르메니아 787km, 그루지야 322km, 이란 611km, 러시아 284km, 터키 9km, 카스피海 800km)
- 인 구: 843만 6천 명(2005년 말 기준)
- 주요 도시: 바쿠(수도), 간자, 숨가이트 등
- 기 후: 지역별로 반건조 스텝 기후, 아열대성 기후 등이 혼합 분포
- 지하자원: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비철금속, 알루미늄 등

□ 행 정

- 공식 국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Republic of Azerbaijan)
- 행정조직: 59개 지역, 11개 시, 1개 자치공화국(나히체반 자치공화국)
- 독 립: 1991년 10월 18일(구소련으로부터 독립)
- 헌법 제정: 1995년 11월 12일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대 통 령: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 2003년 10월 31일 취임)

- 총 리: 아르투르 라시자데(Artur Rasizade, 2003년 11월 4일 취임)
- 의 회: 국가의회 밀리 메즐리스(Milli Mejlis, 125석 5년 임기)
- 총 선: 2005년 11월 6일(차기 2010년 11월)
- 주요 정당: 신아제르바이잔당(NAP, 여당, 58석), 무사바트(Musavat) 등

□ 사회·문화

- 민 족: 아제르인(90.6%), 다게스탄인(2.2%), 아르메니아인(1.5%)
※ 아르메니아인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집중거주하며 분리독립 요구
- 언 어: 아제르바이잔어(공식 언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 종 교: 이슬람교(93.4%), 러시아정교(2.5%), 아르메니아정교(3.9%)
- 식 자 율: 98.8%(2003년 기준)
- 공식 화폐: 아제르바이잔 마나트(AZN)

□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 수 교: 1992년 3월 23일(겸임국- 駐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교 민 수: 50명(체류자 4명)
- 통상관계: 교역량 3,234만 달러(수출 3,224만 달러, 수입 10만 달러)

2. 정치 및 외교 현황

-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알리에프家(Aliyev)가 대통령직을 세습하는 등 대통령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헤이다르 알리에프(Heydar Aliyev)는 1969년부터 구소련 아제르바이잔 공산당 서기장을 지냈으며, 독립 이후 1993년 10월 대통령에 선출되어 2003

년 12월 사망시까지 아제르바이잔을 통치함.

- 헤이다르 알리에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에프(Ilham Aliyev)는 아버지의 통치 기간 동안 NAP 당수,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SOCAR) 부사장 등을 역임한 후 2003년 10월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세습함.
 - 국제선거감시단에 따르면, 2003년 대선에서 선거인명부 미등록투표, 복수투표 등 다양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으며, 이로 인한 항의시위는 최근 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통령이 된 일함 알리에프는 신진 엘리트 세력인 바쿠(Baku)계를 중심으로 구세력인 나히체반(Nakhichevan)계를 축출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표 1-1. 2003년 아제르바이잔 대선 결과 (단위: %)

후보자	소속 정당	득표율
일함 알리에프	NAP	76.8
이사 감바르	무사바트(Musavat)	14.0
랄라 하지예바	시민연합(A Group of Citizens)	3.6
에티바르 맘마도프	아제르바이잔 국민독립당(ANIP)	2.9
일리야스 이스마일로프	아돌라트(Adolat)	1.0
사비르 루스탐한리	국민국가당(NSP)	0.8
구드라트 하산쿨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민중전선(PFA) 친정부파	0.5
하피즈 하지예프	현대 무사바트(Modern Musavat)	0.3

자료: 아제르바이잔 중앙선거위원회; EIU(2005)에서 재인용함.

- 아제르바이잔 의회도 알리에프가 당수를 세습하고 있는 신아제르바이잔당 (New Azerbaijan Party: NAP)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음.
 - 1995년 실시된 밀리 마즐리스(Milli Majlis) 총선에서는 헤이다르 알리에프가 당수로 있었던 NAP가 총 125석 중 70석을 획득하였음.

- 2000년 11월 총선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 1석이 공석이 된 가운데, NAP가 총 125석 중 79석을 획득하였음.
- 2005년 11월 총선에서도 NAP가 총 125석 중 62석을 획득하였음.
 - 최근 NAP의 총선 승리는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부정선거와 최근 고유가를 바탕으로 한 고도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은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글상자 1-1. 나히체반 자치공화국(The Nakhichevan Autonomous Republic)

◎ 개요

- 아제르바이잔의 자치공화국으로 아르메니아 지역내에 위치하여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엔클라브(enclave) 지역임.
- 총면적 5,500km²에 33만 3,200명(1997년)이 거주하며, 면화·담배·목양 등이 주산업임.
- 수도는 나히체반(Nakhichevan)이며 주요 도시로 파라가차이(Paragachay)가 있음.

◎ 역사

-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은 성경에서 노아(Noah)의 방주가 대홍수 이후 처음 정착한 땅으로 고대 아르메니아(Armenia)의 중심지였음.
- 과거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의 임지(1849~1918년), 아르메니아공화국의 (1918~20년) 영토였으나, 1921년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과 터키 사이에 체결된 모스크바 조약에 의해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음.
- 1924년 구소련 정부로부터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인정받았음.
- 1990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92년 5월 아르메니아가 나히체반을 점령했으나, 이후 아제르바이잔이 재점령하였으며, 최근까지 양국간 민족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는 아르메니아인이 집 단거주하고 있는 자치주로, 자치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근까지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인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아르메니아 영토였으나, 스탈린이 강제로 아제르바이잔에 편입시키면서 민족과 종교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 아르메니아 정교를 믿는 아르메니아인과 이슬람을 신봉하는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의 종교와 민족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94년 양국간 무력충돌과 대량학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서 휴전에는 성공했으나 1998년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OSCE 중재안 거부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임.

- 아제르바이잔의 對러 관계는 자국의 러시아 영향력 차단을 위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전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를 연결하는 자카프카지예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축으로 러시아-아르메니아-그리스-키프로스 이 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대항해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그루지야-아제르바이잔-터키 세력과 연대하며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1992-94년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으나, 2001년 카프카즈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바쿠 선언과 2004년 이의 확대를 위한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하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

■ 글상자 1-2.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The Nagorno-Karabakh Autonomous Region)

◎ 개요

- 아르메니아인 77%, 아제르바이잔인 23%가 거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자치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내의 아르메니아 정교 엔클라브(enclave) 지역임.
- 총면적 4,400km²에 20만 4,800명(1997년)이 거주하며, 면화·포도·밀 재배가 주산업임.
- 1992년 1월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했으나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역사

- 7세기부터 아르메니아 영토였다가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루지야, 몽골, 터키, 페르시아 등의 지배를 받았음.
-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 영토에 소속되었고, 이후 스탈린이 강제로 아제르바이잔에 편입시켰음.
- 1989년 본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 영토로의 편입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1992년 1월에는 주권국으로의 분리독립을 선언하였음.
- 1994년 5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OSCE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양국간 협상 실패로 여전히 분쟁위험이 상존해 있음.

자료: EIU(2005), www.tiscali.co.uk

- 아제르바이잔의 對미 관계는 반테러리즘 동맹의 정치적 이해와 BTC 송유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이해가 혼합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접경지역인 아스타라(Astara)에 미군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등 미국과 반테러리즘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아스타라 미군 레이더기지는 미국의 이란 침공 시나리오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지지로 추진된 BTC 송유관 건설은 아제르바이잔에는 러시아에 의

존하던 석유 및 가스 수출다변화 및 수출증대, 통과료(transit tariffs)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미국에는 카스피해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원 확대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의 對EU 관계는 EU의 유럽근린정책(ENP)에 입각한 경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EU는 주변 CIS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ENP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1994년 이후 ENP에 입각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 EU 국가 중에는 특히 BTC 송유관 건설을 주도한 BP의 영향으로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변국인 그루지야, 터키 등과의 관계는 우호적인 반면, 이란과는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전 대통령인 헤이다르 알리에프와 그루지야 전 대통령인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는 과거 구소련 공산당의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러시아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
 -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한 오래된 우방국으로 1994년 우호협력 10년 조약과 1996년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나고르니카라바흐 분쟁에서도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며 아르메니아에 경제봉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친미정책하에서 급진 이슬람세력인 이란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이란 역시 미국과 아제르바이잔 군사협력과 이란 북서부지역에 밀집 거주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인의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있음.

3. 경제발전 현황 및 전망

가. 경제 일반

-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독립 이후 극심한 경제침체와 산업의 붕괴를 경험하였음.
 - 구소련 붕괴와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1995년까지 국내 생산이 58% 하락하였음.
 - 1991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던 농업은 2004년에 GDP 비중이 12%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 정부는 1995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개혁을 수행하고 있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약 4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로 인해 산업의 GDP 비중은 1991년 24%에서 2003년 37.8%로 증가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총산업 생산의 60%를 차지하게 되었음.
 - EBRD의 경제지원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2001년 7월 IMF로부터 「빈곤감소와 성장촉진을 위한 3개년 프로그램」의 승인을 얻어내면서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최대 산업이며, 이러한 에너지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수출의존도와 산업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산업은 2004년 기준 아제르바이잔 전체 GDP의 30% 이상, 총

수출의 82.3%를 차지하여 CIS 주요 에너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에너지산업에 집중되면서 에너지산업 및 관련된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 산업은 높은 성장을 보이는 반면, 기타 산업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임.
 - 전체 수출 소득의 80%가 석유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외국인투자의 97%가 에너지산업에 집중되었음.
 - 정부는 추가로 1,500억 달러를 석유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여 2009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세 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표 1-2. CIS 에너지부국의 에너지수출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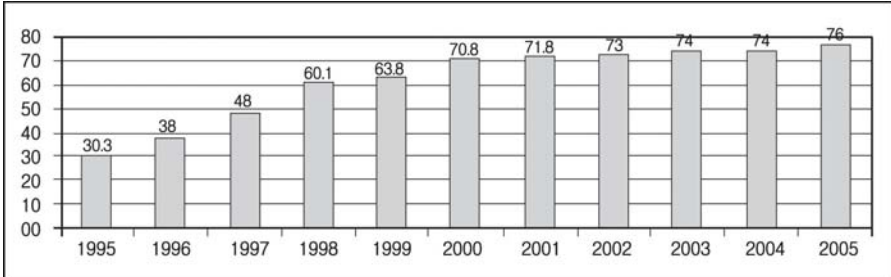
연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수출/총수출(%)	에너지수출/GDP(%)	에너지수출/총수출(%)	에너지수출/GDP(%)	에너지수출/총수출(%)	에너지수출/GDP(%)
1999	41.0	16.0	35.5	12.9	78.1	17.5
2000	47.4	-	54.4	-	85.1	-
2001	49.6	-	58.2	-	91.5	-
2002	52.5	16.3	61.2	21.1	88.9	33.6
2003	56.7	-	64.3	-	86.0	-
2004	57.1	-	68.3	-	82.3	-

자료: EBRD(2004), *Transition Report 2003*; ADB(2005), *Country Key Indicators- Kazakhstan, zerbaijan*.

-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산업생산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0.3%에서 2005년 76%로 높아졌음.

■ 그림 1-1. 아제르바이잔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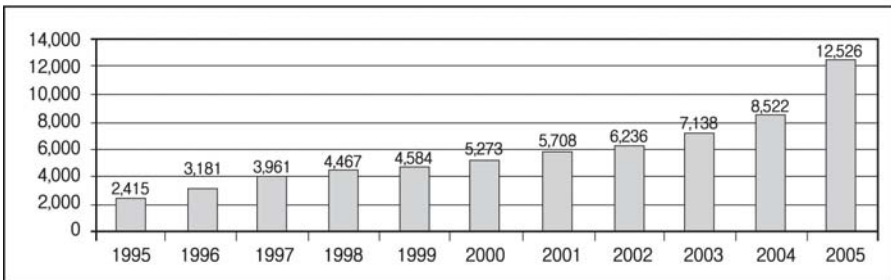
자료: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부(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나. 거시경제 현황

- 2000~04년의 5년간 평균 10.7%,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급속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은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증가임.
 - 2005년 기준 석유·가스 산업의 GDP 비중은 42%를 차지하였으며, 생산 및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43.5%, 53.3% 증가하였음.
 - 2005년 다국적 유전 개발 컨소시엄인 아제르바이잔 국제운영회사(AIOC)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아제라-치라그-구나슈리(Azeri-Chirag-Gunashli: ACG) 3개 유전 개발에 힘입어 AIOC의 석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73.8% 증가함.

■ 그림 1-2. 아제르바이잔의 GDP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부(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 석유·가스 산업의 비약적인 장애 힘입어 교통·통신·건설 등 서비스부문은 전년대비 11%, 농업도 4.6% 성장하였음.

■ 표 1-3.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DP 성장률(%)	11.1	9.9	10.6	11.2	10.2	26.4
1인당 GDP(달러)	665.0	714.3	774.5	896.7	1,041.0	1,517.0
소비자물가상승률(%)	1.8	1.7	2.8	2.6	6.7	9.6
실질임금증가율(%)	20.2	17.3	21.3	21.4	26.2	21.9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n/a	1,093	1,374	1,572	1,845	2,360
경상수지(%/GDP)	-13.1	-3.2	-0.9	27.7	30.2	21.0
환율(AZM/달러) ¹⁾	4474	4656	4861	4911	4914	0.95 ²⁾
FDI 유입(백만 달러)	927.0	1,091.8	2,011.9	3,060.3	3,981.3	4,161.5

주: 1) 환율은 기간평균

2) 2005년 환율은 2006년 1월 1일 리디노미네이션 반영 환율

자료: 아제르바이잔 경제발전부(2006), *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2006*.

□ 석유·가스 산업에 집중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2005년 국내총투자는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높은 GDP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41억 6,200만 달러의 순유입실적을 기록하였음.

- 이는 대부분 2005년 개통된 BTC 송유관과 2006년 완공 예정인 ACG 유전, 샤-데니즈(Shah-Deniz) 가스전 및 가스관 등의 개발에 집중됨.
-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투자를 합한 총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UNSTAD의 2004년 조사결과 FDI 유입실적 3위를 기록함.

- 석유·가스 산업의 성장이 일출효과를 발생시켜 타 산업 또한 높은 동반성장을 기록하였음.
 - 건설부문은 주택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 건설,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석유 산업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약 네 배 가까이 성장하였음.
 - 2005년 1~10월 기준 광업의 산업 생산증가율은 무려 36.2%, 정유산업은 1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구매력 증가로 첨단 서비스산업 또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어, 2005년 1~10월 사이 통신시장은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0% 가까이 증가하였음.

■ 표 1-4.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부문별 산업생산증가율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1~10월
광업(석유 및 천연가스)		1.4	2.3	36.2
전 력		16.4	2.3	4.5
제조업	식 료 품	5.2	0.1	4.5
	정 유	4.2	9.1	11.9
	화 학	8.0	25.0	9.0

자료: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 2005년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수지는 -0.7%의 소폭 적자를 기록 하였으나, 최근 높은 석유 수출소득으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의 증가를 고려할 때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5년 정부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상승, 석유 및 가스의 국내 공급 보조금 증가, 사회 및 산업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음.
 - 2005년 정부 재정소득 또한 세수의 전년대비 24.6% 증가로 인해 43.5% 증가하였음.

- 정부가 국제유가의 유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SOFAZ)은 2005년까지 총 13억 9천만 달러를 적립하였음.
- 정부지출 및 석유소득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주목해야 할 변수임.
 - 2003년까지 2%대를 유지하던 아제르바이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9.6%까지 급상승했음.
 -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은 외화소득 증가로 발생하는 대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05년 총통화증가율(M2 기준)은 전년대비 32%를 기록하였음.
 - 또한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2005년 실질임금이 전년대비 21.9% 증가한 것도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2005년 대외무역은 석유 수출의 호황과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 증가로 총 85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5년 수출은 BTC 송유관 완공과 신규 유전 개발 등으로 석유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87% 급증하였음.
 - 2005년 석유 및 가스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자본재의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높은 국내 수요에 힘입은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총수입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음.
 -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2005년 경상수지도 GDP 대비 21% 흑자의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이탈리아, 체코를 비롯한 EU 국가와 러시아를 비롯한 CIS 주변국이며, 특히 아제르바이잔 석유의 대부분은 이탈리아로 수출됨.

- 이탈리아는 1999년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석유 수출대상국으로, AIOC의 석유 중 45%가 이탈리아로 수출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떠오름.
- 對CIS 무역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수입으로 인해 러시아는 여전히 최대 수입대상국임.
 - 러시아를 제외한 CIS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5대 수입대상국 반열에 오르지 못함.
 - 아제르바이잔은 2004년 총가스 수입의 16%를 러시아에 의존하였음.

■ 표 1-5.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무역대상국 현황(2005년, 상위 5개국)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수출대상국	수출액	수입대상국	수입액
1	이탈리아	691	러시아	719
2	체코	438	영국	361
3	프랑스	351	독일	332
4	독일	276	터키	279
5	인도네시아	150	네덜란드	240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통계 www.kita.net

- 최근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IMF 권고를 바탕으로 환율제도 변경 및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단행했음.
 -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중심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재할인율을 2005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5%에서 7%로 인상하였음.
 - 중앙은행은 기존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유동성이 강화된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對달러 마나트화의 환율은 2005년 평균 4% 절상되었음.

- 중앙은행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對달러 마나트화의 환율이 1% 절상되면, 0.6~0.7%의 인플레이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06년 1월 1일, 新마나트화를 도입하고 舊5천 마나트를 1新마나트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음.

다. 경제 전망

1) 2006~07년 단기 거시경제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제르바이잔의 2006~07년 단기 거시경제를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전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음.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관리변동환율제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정책을 기조로 함.
 - 정부는 사회 및 경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림과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국제유가가 고유가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표 1-6. 아제르바이잔의 2006~07년 단기 거시경제지표 전망

	2006년	2007년
GDP 성장률	30.5	27.3
인플레이션	13.0	7.0
경상수지(%/GDP)	15.8	32.9

자료: OADB(2006),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6*.

- 2006년과 2007년 GDP 성장률은 30.5%, 27.3%로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석유 및 가스의 수출증가, 국내투자 증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등이 높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임.
- 2006년과 2007년 석유 및 가스 생산과 수출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BTC 송유관 완공의 효과와 2006년 샤테니즈 가스전 개발로 석유 및 가스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2006년과 2007년 석유 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42.4%, 21.8% 증가하여 2007년에 연간 3,483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 2006년과 2007년 가스 생산은 전년대비 각각 15%, 108.3% 증가하여 2007년에 11억 입방미터가 될 전망이며, 2007년의 급속한 증가는 샤테니즈 가스전에서의 본격적인 가스 생산에 따른 결과임.
- 외국인투자는 주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투자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됨.
 - 국내투자는 2006년에 전년대비 19.5%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교통·통신·건설 등 비에너지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비에너지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2009년까지 비에너지부문의 평균성장률을 12%로 예측하고 있음.
- 정부예산안에 나타난 2006년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65%까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지출의 대부분은 임금 및 연금 인상, 국방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쓰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폭적인 정부지출을 아제르바이잔의 거시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이로 인해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동력을 다각화하는 산업다각화 전략 및 고성장에 수반되는 거시경제 불안정의 해결이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에너지부문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함.
 - 고성장과 높은 석유 및 가스 수출의존도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현상이 발생 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추진해야 함.
 -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 및 사회의 민주화와 각종 국제분쟁의 해결이 필요함.
 - 현재의 대통령 1인 중심 독재는 단기간 효율적인 경제 운용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는 장애가 될 수 있음.
 - 나히체반 자치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족·종교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대 성장동력인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추가 투자 및 개발이 필요함.
 - CIS 및 중동의 산유국 중 확인매장량이 가장 적을 뿐 아니라, R/P 비율 또한 낮은 편이어서 유전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함.

표 1-7. CIS 및 중동 주요 산유국의 확인매장량과 R/P 비율

지역	국 가	2003년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2004년		
			확인매장량 (십억 배럴)	비중(%)	R/P 비율
CIS	러시아	71.2	72.3	6.1	21.3
	카자흐스탄	39.6	39.6	3.3	83.6
	아제르바이잔	7.0	7.0	0.6	60.2
중동	이란	133.3	132.5	11.1	88.7
	쿠웨이트	99.0	99.0	8.3	100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262.7	262.7	22.1	67.8

자료: BP(200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Global Insight가 전망한 2015년 아제르바이잔은 기타 중앙아시아국가에 비해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유망 경제협력대상국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시장성 측면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뒤를 이어 비교적 높은 GDP 및 1인당 GDP를 보유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제2위의 무역국이 될 전망이다.

표 1-8.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시장성 전망

구 분	인 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시장환율)	수출액 (십억 달러)	수입액 (십억 달러)
카자흐스탄	15.3	177.8	11,598.3	81.2	50.2
우즈베키스탄	31.0	24.8	799.0	11.9	10.7
키르기스스탄	5.8	3.6	629.4	0.9	1.3
타지키스탄	7.9	5.0	634.9	2.0	2.2
투르크메니스탄	5.9	73.5	12,491.0	20.0	17.3
아제르바이잔	9.1	65.5	7,189.8	26.1	21.7

자료: Global Insight(2006),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 성장성 측면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GDP 성장률 및 무역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표 1-9. 2015년 중앙아시아 6개국의 성장성 전망 (단위: 기간 평균증가율, %)

구 분	실질 GDP 성장률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2006~10년	2011~15년	2006~15년	2006~15년	2006~15년
카자흐스탄	8.7	7.0	7.9	14.0	11.0
우즈베키스탄	4.5	4.2	4.3	8.2	10.0
키르기스스탄	3.8	3.4	3.6	2.2	2.5
타지키스탄	5.5	4.5	5.0	5.8	5.4
투르크메니스탄	12.4	8.2	10.0	15.0	17.0
아제르바이잔	12.3	6.5	9.5	16.0	17.0

자료: Global Insight(2006),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라. 장기 경제발전 전략

- 아제르바이잔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은 에너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산업다각화의 자원조달을 위해 에너지 수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기금’(이하 SOFAZ)을 운용 중임.
 - 정부는 2004년 ‘석유 및 가스 소득의 운용에 관한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비 에너지부문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산업다각화의 핵심부문은 첨단 IT 산업과 운송 인프라 기간 산업임.
- 아제르바이잔의 산업다각화 정책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국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발전을 위한 국가 IT 전략 2003~2012」를 수립하고 EBRD와의 협력하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전자정부 등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교통부는 EBRD와 연계하여 바쿠-사무르(Baku-Samur) 구간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아제르바이잔 국영 철도회사는 철도부문 인프라 확충을, 국영 전력회사인 아제르에네르기(Azerenergi)는 최대 발전소인 아즈그레스(AzGres)의 투자를 계획 중임.
 - 최대 산업인 에너지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제 2 장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산업 및 투자 환경

1. 주요 산업

■ 표 2-1. 아제르바이잔 주요 산업의 GDP 비중(2004년) (단위: AZM, %)

산 업	금 액	비 중
농 업	4788.3	12.3
광업(석유 및 천연가스)	11834.9	30.5
제조업	3563.0	9.2
진 력	434.7	1.1
건 설	5661.6	14.6
무 역	3351.0	8.6
교통 및 통신	3969.2	10.2
기 타	5192.4	13.4
총 계	38795.1	100.0

주: 금액은 2006년 1월 1일 리디노미네이션 이전 舊 마나트 기준임.(1달러 ≙ 4,860AZM)

자료: Global Insight(2005), *PlanEcon Review and Outlook- Former Soviet Union*.

가. 석유 및 가스

- 2005년 1~10월에 총 1,770만 톤의 원유를 생산하여 전년동기대비 38%의 생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은 국영 석유회사인 SOCAR와 외국자본 컨소시엄인 AIOC가 담당하고 있음.
 - 이 중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회사인 SOCAR가 670만 톤, AIOC가 1,020만 톤을 생산하였음.

- 샤푸라-데니즈 가스전은 총 6,250억~7,250억 입방미터의 가스와 1억 100만 톤의 가스 콘덴세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SCP 가스관은 샤푸라-데니즈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수출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터키임.
-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30조 입방피트(Tcf)로, 주로 바하르(Bahar) 유전과 신규 구나슈리(Gunashli) 유전에서 생산됨.
- 생산된 천연가스는 국내 소비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량 수출되는 반면, 국내 소비용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입하고 있음.

■ 글상자 2-1.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Baku-Tbilisi-Ceyhan Oil Pipeline: BTC)

◎ 개요

-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출발하여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를 경유하고 터키의 지중해 항구도시 제이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767km 송유관임.
- 석유 수송능력은 현재 일일 50만 배럴이며, 향후 100만 배럴로 증가할 예정임.
- 총 36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영국의 BP를 중심으로 미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에서 11개 기업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이 건설하였음.

◎ 시사점

- BTC 송유관 건설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 석유수출로가 다변화됨.(기존 아제르바이잔 석유의 수출로는 바쿠-수프사(그루지야) 송유관과 바쿠-노보로스츠크(러시아) 송유관으로 제한되어 있었음.)
- BTC 송유관은 기존 러시아 송유관에 의존하던 아제르바이잔 석유 수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송유관 주권을 통해 운송수익을 창출함.
- BTC 송유관은 최근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중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송비 절감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자료: 이재영·김선영(2005),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8호.

- 2005년 가스 생산량은 57억 입방미터로, 2006년에는 전년대비 14% 늘어난 65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BP와 노르웨이 Statoil 컨소시엄은 샤-데니즈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본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또한 전량 수출될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2009년까지 연간 160억 입방미터 규모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나. 농업

- 농업은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산업으로, 체제전환 이후 생산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추세임.
 - 농업은 1991년 전체 GDP의 30%를 차지했으나 2004년에는 12%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연평균 9.7%의 생산증가를 보이면서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제2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곡물·채소·차 등 식용 작물과 면화·실크·담배 등 비식용작물이 있음.

■ 표 2-2.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생산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량	713	903	824	884	946	1,060	1,179	1,270	1,400	1,506	1,881
증가율	-7.0	26.6	-8.8	7.2	7.0	12.1	11.2	7.7	10.2	4.6	7.5

자료: AZPROMO(2006),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6*.

- 우선 구소련 시절 집단 및 협동농장의 형태였던 농업부문의 99%를 민영화 하였으며, 주변국 실수요에 맞는 농작물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1995년 60%에 불과했던 농업부문 민영화 비율은 2000년에 99%를 달성 하는 데 성공하였음.

다. 통신 및 IT

- 통신 및 IT 산업은 아제르바이잔의 신규 육성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정부는 통신 및 IT 산업을 산업다각화를 위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정부지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전 대통령인 헤이다르 알리에프는 2000년대 초 국가 차원의 통신 및 IT 산업 육성전략인 「아제르바이잔 발전을 위한 국가 IT 전략 2003~2012」를 발표하였음.
 - 터키,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등의 외국기업들은 이동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체 진출을 활발히 진행 중임.
- 유선통신부문은 통신 및 IT 산업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유선통신부문은 국영기업인 아즈텔레콤(Aztelecom)이 독점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5년 인구 100명당 0.9명 수준이던 유선통신 가입자는 2004년에 지상 통신선(land line) 12만 5천 개를 확충하면서 유선통신 가입자는 100명당 13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 중 도시지역 가입자는 18.8명, 전원지역 가입자는 3.8명으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
- 무선통신부문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으로,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양대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무선통신부문은 아제르바이잔 통신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아제르셀(Azercell)과 박셀(Bakcell)의 양대 사업자가 점유하고 있음.
 - 아제르셀은 아제르바이잔 최대 무선통신 사업자로, 아제르바이잔 통신부가 전체 지분의 35.7%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무선통신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음.
 - 박셀은 아제르바이잔 통신부가 지분의 25%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GTIB, 미국의 모토롤라가 공동으로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제르바이잔 무선통신시스템인 E-TACS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1997년 아제르셀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음.
 - 현재 양대 사업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71%를 커버하고 있으며, 아제르셀의 경우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음.
- 2005년 무선통신 가입자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인터넷 가입자는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향후 재반통신 인프라가 구축되면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 정부는 무선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시아·유럽간 광섬유 케이블(Trans-Asia-Europe Fiber-optic Cable)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라. 건설

- 건설부문은 정부의 독점 해소 및 민영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부동산의 활황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헤이다르 알리에프 전 대통령은 1997년 「건설부문의 독점 해소와 민영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주택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음.
 -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급증에 따라 수도인 바쿠를 중심으로 고급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등 주택과 부대시설 등의 건설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2004년에 아제르바이잔 건설부문은 전년대비 37% 성장하였음.

마. 섬유

- 아제르바이잔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은 면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면화 재배지역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10% 이상 증가하여 6만 6,800 헥타르에 이르렀으며, 같은 기간 면화 생산량은 9만 9,500톤으로 23% 증가하였음.
 - 아제르바이잔 면화의 잠재 생산량은 총 28만 헥타르에 80만 톤으로, 정부는 투자를 통해 잠재 생산량 가까이 생산을 늘릴 계획임.
 - 면화 이외에 울, 실크 등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음.
 - 2005년 목양산업은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간 1만 4천여 톤의 울을 생산하고 있음.
 - 2005년 실크는 뽕나무 재배지 2만 5천 헥타르에 연간 9천 톤의 누에를 통해 2,60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음.

바. 교통 및 물류

- 아제르바이잔은 비교적 잘 정비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EU·러시아·중동을 잇는 물류 요충지이기 때문에 향후 교통 및 물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총연장 2만 5천km의 도로와 2천km의 철도, 국제공항 3개소 등이 있으며, 수도인 바쿠를 중심으로 많은 카스피해 항구를 보유하고 있음.
 - 항공부문에서 최근 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해운부문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BTC 송유관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부문도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교통 및 물류 산업은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아제르바이잔 정부구조의 대대적인 개혁 이후 교통부는 교통 및 물류 산업을 총괄하며,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여 국내 인프라 구축과 해외 인프라와의 연결에 주력하고 있음.
 - EU를 스폰서로 추진되는 TRACECA 프로젝트(EU·카프카즈·아시아 국제물류 회랑)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표 2-3. 아제르바이잔의 물동량 동향

(단위: 톤, %)

연 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물동량	565,611	115,282	83,382	92,993	105,005	121,818	127,070	140,393	148,009
증가율	-9.3	-25.7	-1.9	11.5	12.9	16.0	4.3	10.5	5.4

자료: AZPROMO(2006),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6*.

■ 글상자 2-2. TRACECA 프로젝트(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 개요

- 1993년 브뤼셀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카프카즈 3개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유럽~카프카즈~아시아를 잇는 교통 및 물류 회랑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 이후 1996년 10월 몽골과 우크라이나가, 1998년 5월 몰도바가 추가로 회원국에 가입하였음.
- 본 프로젝트는 EBRD가 기술원조 39개 사업, 인프라 투자 14개 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 약 11억 유로를 지원하고 있음.
-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EU와 프로젝트 회원국간 교통·통신·물류망 연결과 물류수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상호 무역 및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임.

◎ 아제르바이잔 참여 현황

- 바쿠에 본 프로젝트 정부간 위원회 상설화
- 바쿠 항구에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예정(250만 유로) 등

자료: www.traceca-org.org

2. 투자환경

가. FDI 제도

-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 법조항 개혁을 추진해왔음.
 - 1999년과 2001년 사이에 관세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 노동법, 은행법 등 외국기업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입법 및 개혁하였음.
- 1992년에 발효된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기업 설립 및 투자, 주식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있음.
 - 제4항은 정부의 기업 민영화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제5항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보장하고 있음.
 - 제14항은 외국기업의 이익 중 이윤세 10%를 제외한 모든 이익에 대해 본국으로의 송환을 보장하고 있음.
- 현재 약 27개 국가 및 지역협력체와 상호투자촉진보호조약을 체결하였음.
 - 아제르바이잔과 상호투자촉진보호조약을 체결한 대상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영국, 벨기에, 스위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핀란드, 레바논, 중국, 파키스탄, 터키, 폴란드, 라트비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26개국과 1개 지역협력체(OPEC)임.

나. 외환제도

- 중앙은행은 최근 외환거래에 대한 개혁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음.

- 2004년 아제르바이잔 은행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제한이 완전 폐지되었음.
- 중앙은행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시에 내외국인의 해외 선지급(advance payment)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음.
 - 단 선지급 이후 365일내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함.
- 내외국인의 펀드 투자수익 현금화에 대해 법정 청산환율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을 폐지하였음.
- 외환거래는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다. 과세제도

- 정부는 국내 진출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은 28%에서 18%로 대폭 내렸으며, 200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법인세율도 22%로 인하되었음.
 - 사업시 부과되는 총세금 종류도 15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음.
 - 분기별로 부과되는 단일세율은 수도권 바쿠 사업자 4%, 기타 지방 사업자 2%로 책정하고 있음.
 - 지분보유세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10%가 적용됨.
- 해외 주요국들과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Treaty)을 체결하고 있음.
 - 이중과세방지협약 기체결국은 영국, 파키스탄,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독일, 카자흐스탄, 터키, 그루지야, 폴란드, 러시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프랑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중국, 독일, 캐나다 등 21개국임(협약 체결順).
-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무역제도 개혁을 추진 중임.
 - 최근 WTO 가입을 위해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무역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

으며, 가중평균 수입관세율을 5.7%로 인하하였음.

- 현재 수출에 대해서는 금속 및 금속제품 소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관세 및 제한도 존재하지 않음.
- 통관수수료는 소수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0.15%로 동일함.

라. 은행제도

- 정부는 1999년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로 은행제도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음.
 - 본 프로그램의 주목표는 국영은행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민간은행의 경영 합리화, 중앙은행의 민간은행 관리감독기능 강화, 법제도 정비, 금융인프라 구축 등임.
 - 아제르바이잔 은행부문은 2개 국영은행인 연합 유니버설 은행(UUB)과 아제르바이잔 국제은행(AIB)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2003년 AIB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 1994년 210개에 달하던 은행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수합병과정에서 42개로 감소하였음.
 - 정부는 은행 보유의 최소 자본금을 350만 달러로 인상하는 한편, 신규 은행 설립시에는 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은행법과 중앙은행법이 입법화하면서 본격적인 은행제도 개혁이 시작되었음.
- 2003년 말부터 외국기업의 은행 투자 제한이 완전 폐지되었으며, 증권부문 발전을 위해 국영 증권위원회와 바쿠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음.
 - 2006년 1월 1일 기준 아제르바이잔에는 42개의 은행과 85개의 비은행계 금융기관이 존재하며, 외국기업은 약 18개 은행에 투자하고 있음.

제 3 장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아제르바이잔의 전략적 가치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 함께 범중앙아시아권 국가로 분류되며, 광의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속함.
 -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이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의미하나, 아제르바이잔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고 경제구조가 유사하여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 지정학적으로 유럽, 러시아, 중국, 중동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지역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
 - 석유, 가스, 면화, 금 등 농산물과 지하자원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 최대 석유 수출국임.

-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러시아·중국·EU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국제정치질서의 각축장이 되고 있음.
 - 미국은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 BTC 송유관 건설 참여 등을 통해 안보·경제적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을 방지하

고 자국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이념을 전파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 의존형 경제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 BTC 송유관 건설 이전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는 러시아가 관리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 및 가스를 수출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심한 경제적 종속을 낳았음.
 - 중앙아시아는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CIS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은 서진정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을 확보하려는 실리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EU는 구소련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유럽근린정책(ENP)를 바탕으로 EBRD를 통한 경제적 원조를 강화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 개별국의 경제규모는 작은 편이나 중앙아시아 전체로는 필리핀·베트남 등 중규모(medium-size) 경제와 맞먹는 높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의 전체 인구는 약 6,500만 명, 총 GDP는 720억 달러로, 최근의 고성장이 지속된다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상품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참고로 필리핀은 인구 8,300만 명, GDP 864억 달러(2004년)이며, 베트남은 인구 8,220만 명, GDP 452억 달러(2005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국내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자본재 및 사치재의 상품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는 석유·가스·광물 자원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새로운 자원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한 고성장

을 바탕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하고 있음.

- 석유의 잠재매장량이 2,600억 배럴에 달하는 등 러시아와 함께 중동을 보완할 세계 석유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구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다국적기업들은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 산업 개발 및 인프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음.
 - 또한 생산물분배협정(PSA)를 통해 중앙아시아 석유를 자국에 공급하고 있음.
- 에너지 수출국을 중심으로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 대신 I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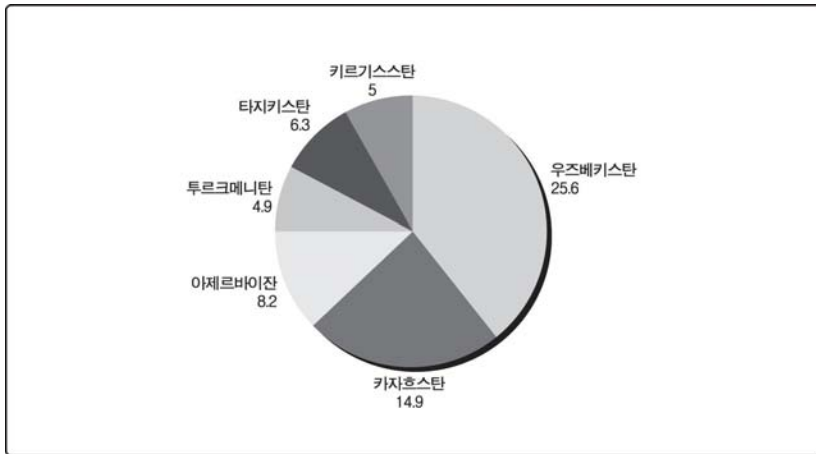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근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에너지자원, 친시장적인 투자환경, 지정학적 가치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성 및 성장성이 높음.

-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의 13%, GDP의 12%에 불과하나, 경제성장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20%대, 중장기적으로는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경제발전 초기 적극적인 시장경제 메커니즘 도입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 장벽이 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아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음.
- 풍부한 석유·가스를 보유한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수입의 중동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중요한 국가임.
- CIS 에너지 수출국 중 가장 먼저 안정화기금을 운용할 만큼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가능함.

-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를 잇는 물류허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그림 3-1.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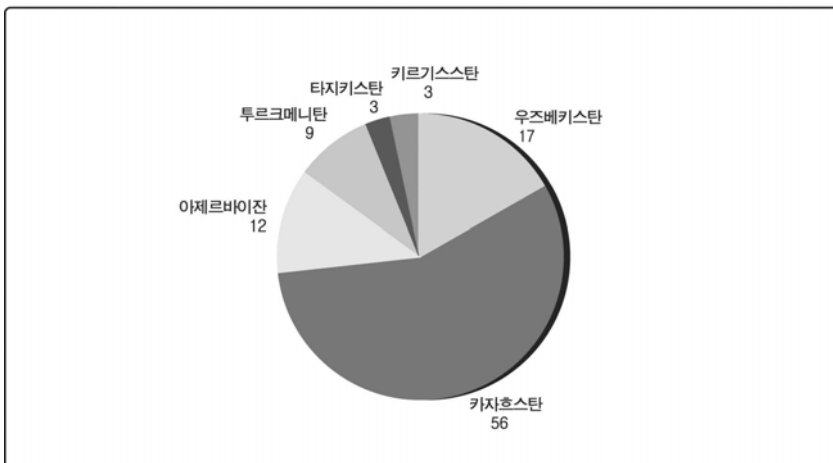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자료: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 그림 3-2. 중앙아시아의 국가별 GDP 비중

(단위: %)



자료: World Bank(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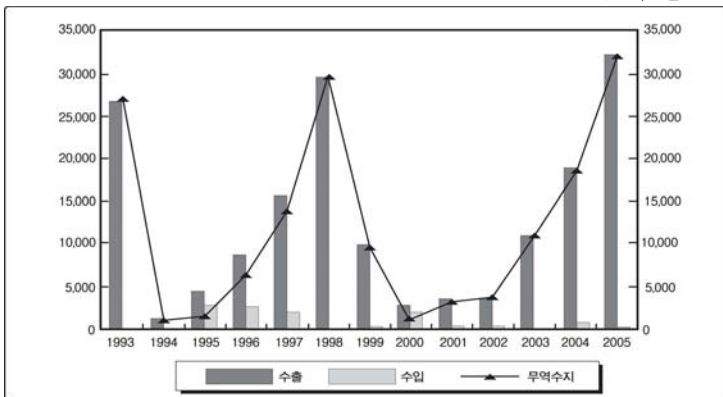
2.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현황

- 1993년 시작된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교역관계는 수출 위주의 무역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2005년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입은 수출 3,224만 달러, 수입 10만 3천 달러로, 수입은 수출의 약 3%에 불과함.
 - 무역수지는 수출과 거의 동일한 3,214만 달러임.
 - 수출은 199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년대비 68.6% 증가하였음.
 - 한국의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꾸준한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증감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장기적인 수출시장 개척이 부진하였음을 의미함.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 주로 수송기계·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자본재를 수출하는 반면, 농산물·가구 등 농업 및 경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림 3-3.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교역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www.kita.net)

- 한국은 거의 전 품목에서 고르게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입은 신규 수입되는 농산물·가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급감하고 있음.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입은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증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 표 3-1.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5년) (단위: 천 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가율	품 목	금액	증가율
1	수송기계	19,844	59.6	수산물	89	-
2	석유화학제품	6,662	497.7	가구	8	-
3	산업용 전자제품	1,404	46.9	인쇄물	3	-7.3
4	기초산업기계	1,006	183.6	섬유제품	1	-82.5
5	농산물	682	3,231.0	전자부품	1	-96.1
6	가정용 전자제품	606	634.6	-		
7	섬유제품	594	-77.3	-		
8	정밀화학제품	492	34.5	-		
9	철강제품	381	-49.3	-		
10	전자부품	158	250.4	-		
총계	32,240			103		

주: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수입품목 중 6위 이후 품목은 금액이 미약하여 생략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www.kita.net)

-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는 도소매업 총신고건수 1건에 신고액 2만 달러, 투자액 5천 달러로 극히 미약한 수준임.
-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은 최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 현재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아제르바이잔이 보유하고 있는 이남(Inam) 유전과 알로프

(Alov) 유전에 대한 지분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11월 카스피해 자원 협력협의단과의 면담시에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BP가 한국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힘.

- 다만 알로프 유전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간 광구 경제설정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정부는 양국간 자원개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 아제르바이잔 측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문안을 제시하였음.
 - 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광물의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양국간 자원협력위원회 설립 등임.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금광에 대한 공동개발 참여를 요청하였음.
- 한국의 정보통신부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 및 IT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정보통신부는 2006년 중 양국 관련 부처 장관 면담시 통신 및 IT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SK C&C와 KT는 각각 아제르바이잔 전자정부와 제3이동통신사업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최근 양국간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에서 2005년에 한국문화주간행사 및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한류문화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함.
 -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문화권 국가로 한국과 정서가 비슷하며, 과거 한국 전쟁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우방국인 터키가 소위 ‘형제국’이 되면서 한·아제르바이잔의 문화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아제르바이잔 문화부는 2006년 서울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화의 날 행사 개최를 제의했으며 한국은 이를 검토 중임.
- KOICA는 對중앙아시아 무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위한 전문인력 파견 및 연수생 초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음.
 - 2004년 말 현재 본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 지원된 총지원액 2,600만 달러 중 아제르바이잔에 지원된 금액은 약 22만 3천 달러로 전체의 0.86%에 불과함.
 - 파견된 전문인력 총 19명(우즈베키스탄 15명, 카자흐스탄 4명) 중 아제르바이잔에 파견된 인원은 없음.
 - 초청된 연수생 총인원 1,167명 중 아제르바이잔 연수생은 43명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함.

3.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교역 및 투자 확대

-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역 확대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의 자본재, 고부가가치 소비재 등에 비교우위가 명확하나 그동안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및 체계적인 수출지원책 부재로 수출 실적의 유동성이 심했음.

- 관·산 협동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對아제르바이잔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함.
 - 전문적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시장개척과 지역 및 수출 유망상품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 및 상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업설명회, 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교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극심한 무역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우수한 수입품 발굴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심한 무역불균형은 상호 경제협력과정에서 양국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IT, 건설, 운송 등 첨단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및 IT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동력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비교우위 및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 운송, IT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진출을 희망하고 있음.
 - 對아제르바이잔 투자를 통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 아제르바이잔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은 양국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신흥시장이면서도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서 가치가 높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향후 성장성과 시장성이 높은 데다가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평가됨.

- 한국 정부는 기업들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다양한 상호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함.
 - 아제르바이잔과 상호투자촉진보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상호 협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27개국과 상호투자촉진보호조약을, 2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충실히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아제르바이잔과의 정부간 대화채널 활성화와 주무 부처 및 기업체간 MOU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나. 에너지 공급원 확보

- 한국은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산업에 진출하는 후발주자로서, 관·산 공조를 통한 정부 차원에서의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미 적극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석유·가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 고위급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로비가 중요한 변수임.
 -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정책의 의사결정권은 시장이 아닌 국영석유회사 및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 관련 부처간 MOU를 체결하고 상설 자원협력채널을 가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에너지와 타 사업을 연계하는 패키지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국가 또는 업체에 광구 분양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 개발 참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높은 건설인프라부문과 동반진출할 필요가 있음.

다.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

-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정계·재계·관계 등 사회고위층간 적극적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정치적 합의는 양국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대통령 1인 중심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지라도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큼.
 -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 및 답방을 정례화하는 한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론 주도층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아제르바이잔 포럼」을 상설화함으로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정부는 적극적인 유무상 원조 지원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실행되고 있는 KOICA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위한 무상협력사업,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등을 아제르바이잔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앙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를 아제르바이잔까지 확대하여 양국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
 - 현지 대학에 한국 관련 학과 설립, 유학프로그램 활성화, 연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적 親한국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문자료]

- 이재영 · 김선영. 2005. 「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 개통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제8권, 제8호.
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통계(www.kita.net)

[영문자료]

- ADB. 2006. *Asian Economic Outlook 2006*.
_____. 2005a. *Country Key Indicators-Azerbaijan*.
_____. 2005b. *Country Key Indicators-Kazakhstan*.
Armenia History(www.armenianhistory.info).
AZPROMO. 2006.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2006*.
BP. 200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BRD. 2004. *Transition Report 2003*.
EIU. 2005. *Country Profile 2005-Azerbaijan*.
Global Insight. 2006. *Online Service(www.globalinsight.com)*.
_____. 2005. *PlanEcon Review and Outlook-Former Soviet Unio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6. *The Republic of Azerbaijan-Economic Profile of the Country 2006*.
Tiscali(www.tiscali.co.uk).
TRACECA(www.traceca-org.org).
World Bank. 200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Executive Summary

Economic Development of Azerbaijan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zerbaijan

Hyeon-Joon Shin

Azerbaijan is coming into the spotlight of world economy because of rapid economic growth,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market-friendly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President Noh's state visit to Azerbaijan in May 2006, Korea is showing more interest in Azerbaijan economy. Azerbaijan is worth being Korea's new trade partner. Many specialists in Azerbaijani economy forecast that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Azerbaija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zerbaijani government tries to reduce 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Since Korea heavily depends on Middle East in the import of oil and gas, Azerbaijan holds a key post in alternatives in order to diversify import routes of oil and ga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zerbaija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zerbaijan's economic development and make a blueprint for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zerbaijan. The development of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zerbaijan has been unbalanced and Korea's direct investment to Azerbaijan has been few or no. Korea's trade surplus has significantly expanded and continued. As trade imbalance and few direct investment play a restrictive role in consolidating and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Korea needs to make a

great effort to facilitate trade and direct investment in Azerbaijan. For a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Korea should initiate Azerbaijan into experience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vide Azerbaijan with credit assistance and grant aid and promote cultural exchange.

KIEP 발간자료목록(2004~2006. 8)

■ 정책자료

-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박순찬 외
- 04-02 對중남미 경제협력 증장기 전략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 김원호·권기수·김진오
- 04-03 ASEAN + 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韓·프랑스 경제협력 / 김홍중·김균태
-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 강준구·박지현
- 04-07 수입선 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김정곤·박혜리
-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박지현
-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 강준구
-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 엄부영·강정실
-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
-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 최낙균 외
- 05-02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강정실
-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홍수연
-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주요국의 대응 / 김홍중·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 엄부영
-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 김권식
-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 이준규 편
-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 송영관
-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창수·김우영·박순찬
-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이창수·김민성·윤창인·김진오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06-02 몽골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정재완·유민우
-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 신현준
-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여지나

■ 정책연구

-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의 시사점 / 김원호 외
-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 이홍식 외
-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남영숙 외
-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방호경 외
-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 최낙균
-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 / 윤창인
- 04-07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 이창수
-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 윤미경·윤창인·이상승
-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 양두용 외
-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 김홍중 외
-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추진전략 / 정인교 외
- 04-1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강문성
-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 이홍배 외
-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 지만수 외
-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 홍익표 외
-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 안형도·오용협
-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 전일수·홍석진
-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이상학
-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이형근
-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 윤창인·이재협
-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 남상열 외
-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이창재 외
-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창수·박지현·김용택

-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 윤창인
-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김홍종·이창수·김근태·강준구·박순찬
-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 김상겸·박성훈·박순찬·박인원
- 05-11 최근 해외자본 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백승관·신관호·전중규
- 05-12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 오용협·김은경
- 05-13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환율 중심의 안정화 정책의 검토 / 양두용·정용승·정재식
- 05-14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 윤덕룡·이영섭
-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환·이재영·방호경
-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 권 율·왕윤종·오쿠다 사토루·정재완
-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 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관호
-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 정성춘
-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 조명철·동용승·홍익표·이재영·이종운·정형곤
-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 유재원·임혜준 편
-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안형도·김종혁

■ 지역연구

-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 박복영
-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 김홍종·이철원·김병연

■ Policy Analyses

-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 Hongshik Lee, and Junkyu Lee
- 05-03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Chang Jae Lee *et al.*

■ 정책토론회시리즈

-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 권 율 · 홍수연
-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전망 / 강문성 · 강준구 · 박지현 · 김정곤

■ 세미나자료모음

-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Reconsidering the Washington Consensus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홍중·박성훈·페터 가이 편
- 06-01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APEC Study Series

-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 Assessment and New Challenges / Seok-young Choi
-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 Grasping New Opportunities
/ John McKay

■ OECD Study Series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 Doo
-Yull Choi

■ Discussion Papers

04-01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 Heungchong
Kim, Woosik Moon, and Deok Ryong Yoon

04-02 A Critical Assessment of India's Banking Sector Reform / Tae Hwan Yoo

04-03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 Young-
Sun Lee and Deok Ryong Yoon

05-01 A Brief Appraisal of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Japan,
ASEAN, the EU and the U.S. / Tae Hwan Yoo and V. Balaji Venkatachalam

■ Working Papers

04-01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errorism / S. Brock Blomberg, Gregory D.
Hess, and Athanasios Orphanides

04-02 Regional vs. Global Risk Sharing in East Asia /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04-03 Complementarity of Horizontal and Vertical Multinational Activities / Sungil Bae and
Tae Hwan Yoo

04-04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 Choong Yong Ahn and Doo Yong Yang

04-05 Expansion Strategies of South Korean Multinationals / Hongshik Lee

04-06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 Yung Chul Park, Wonho Song, and
Yunjong Wang

04-07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 Wanjoong Kim and Terrence Kinal

04-08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of
International Consumption Risk Sharing / Yonghyup Oh

- 04-09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 Jong-Woon Lee
- 04-10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 Chae-Shick Chung and Doo Yong Yang
- 04-11 Marginal Intra-industry Trade, Trade-induced Adjustment Costs and the Choice of FTA Partners / Chan-Hyun Sohn and Hyun-Hoon Lee
- 04-1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ast Asia / Soon-Chan Park, Hongshik Lee, and Mikyung Yun
- 04-13 Location Choice of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 Sung Jin Kang and Hongshik Lee
- 04-14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Zhaoyong Zhang
- 05-01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Bokyeong Park and Kang-Kook Lee
- 05-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 Jongkyou Jeon, Yonghyup Oh, and Doo Yong Yang
- 05-03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During 1988-1999? / Yonghyup Oh
- 05-04 A Roadmap for the Asian Exchange Rate Mechanism / Gongpil Choi and Deok Ryong Yoon
- 05-05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tional Model / Sophie Saglio, Yonghyup Oh, and Jacques Mazier
- 05-06 Exchange Rate System in India: Recent Reforms, Central Bank Policies and Fundamental Determinants of the Rupee-Dollar Rates / Vivek Jayakumar, Tae Hwan Yoo, and Yoon Jung Choi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동북아연구시리즈/CNAEC Research Series

-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 Zhaoyong ZHANG
-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 Richard E. Baldwin

-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 Kiyotaka Sato
-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 Lee-in Chen Chiu
-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 Yin-Wong Cheung
-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 CHEN Hong
-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 Françoise NICOLAS
-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 Kimie Harada
-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 Sumio Kuribayashi
-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 James H. Chan-Lee
- 05-06 中國 東北3省 진흥 및 中·韓 經濟協力の 새로운 구상 / 임 명
-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 Simon Hix and Hae-Won Jun
-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 지역리포트

- 04-01 南阿共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 박영호
-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이철원
-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 박영호
-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 박영곤
-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 김홍중·김군태
- 04-06 일·ASEAN FTA 추진현황과 전망 / 권경덕·김은지
-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 이철원
-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 이재영·신현준·김선영

-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전망 / 배희연
-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韓·獨 경제관계 / 김홍중·김군태·Bernhard Seliger
-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 정성춘
- 06-01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 박복영·황주성·박철형

■ 지역연구회시리즈

-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 김은경·김홍중
-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체제의 효율성 분석 / 김홍중
- 05-01 한·일 경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 이종윤
- 05-02 러시아의 舊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 장형수·정여천
-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 박승찬
-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 미무라 미쓰히로
-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 유장희·김은미
- 06-01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 단행본

-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 이철원·정후영
-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 이경태
-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최낙균
-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강준구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김관호·원신희
-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이성봉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 이경태 편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조명철 편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 최낙균·윤창인·송유철·이성봉·김준동·양준석·이종화·손찬현·강문성·박순찬·윤미경
-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orean Crisis and Recovery / 김세직·David T. Coe eds.
-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 KOPEC·KIEP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안충영 편
- Toward a Transparent and Globalized Economy / 안충영 편
-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 김원호 편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 2003/04 북한경제백서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 KIEP·한중남미협회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흥종·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현준(申鉉俊)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문학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Petersburg) 국립대학교 수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러시아/CIS 경제)

저서 및 논문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한국기업 참여방안』(공저, 2006)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과 러시아 가스수출전략』(『KIEP 세계경제』 2월호, 2006)

『중아시아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공저, 2006) 외

정책자료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년 8월 10일 인쇄

2006년 8월 16일 발행

발행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주)인쇄그룹형제 전화: 2278-8828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2099-9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5,000원